

대 기부자이며 축복의 공여자가 되어라.

오늘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에게서 순수성의 인격, 모든 성취의 화신인 왕족다운 품격, 기억의 영적 화신이 된 현실을 보고 있다. 그는 자녀들 모두가 순수성의 인격이라는 반짝이는 빛의 왕관을 쓴 것을 보고 있다. 한쪽에서 그는 모든 성취의 화신인 자녀들의 집회를 보고 있다. 다른 한편에는 항상 뭔가 결여되어 있으며 결코 성취의 화신이 아닌 영혼들이 있다. 일시적인 모든 성취를 끊임없이 갖고서도 그들은 결코 만족되지 않아서 항상 이런저런 것을 원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입으로,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저걸 원해” 라고 한다. 그들은 뛰어다니고 있다. 그들은 목말라하며 변함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며 몸, 마음, 부, 다른 사람이라는 면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들은 특히 세 가지를 원해서 그것들을 갖고자 온갖 종류의 노력을 다 한다. 우선 그들은 힘을 원하는데, 육신의 힘, 부의 힘, 지위의 힘, 지각의 힘을 원한다. 두 번째로 그들은 신봉도 역시 원한다. 그들은 잠깐 동안 정직한 마음으로 신봉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한다. 신봉자 영혼들은 그러한 신봉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다. 세 번째로 동시대 이후 많은 영혼들이 슬픔의 세계를 보아오면서 이 슬픔과 평화롭지 못함으로 괴로워하며 소리쳐 불러왔고 일시적인 성취는 신기루와 같다고 여겨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슬픔의 세계와 악덕들의 슬픔이 만든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원한다. 신봉자들은 신봉을 원하고, 나머지들은 힘을 원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해방을 원한다. 불만스러워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행복, 평화, 순수성, 지식을 한 방울 줘서 그들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충족감의 보석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그러하냐? 너희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아버지는 너희가 공여자의 자녀들로서 아직도 어떤 일시적인 성취에 대해 끊임없이 “난 이것을 원해! 나는 저걸 원해! 나에게는 이것이 없어!”라고 부르짖는 것에 온정을 느낀다. 그러니 공여자 마스터이며 성취의 화신인 너희 자녀들은 세계의 영혼들에 대해 자비심을 느끼느냐? 일시적인 욕망을 뒤쫓아서 그토록 많이 배회하고 있는 너희의 형제들을 도우려는 열의를 갖고 있느냐? 공여자의 자녀들아, 너희의 형제들에게 자비와 온정의 시선을 던져라! 대 기부자가 되어라! 축복의 공여자가 되어라! 충족감의 빛나는 보석이 되어서 모든 이를 충족시켜라. 오늘날 사람들은 충족감의 여신을 많이 소리쳐 부르는데 왜냐하면 충족이 있는 곳에는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다. 충족감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은 물질의 부를 많이 갖고 있는 경험도 역시 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충족되어 있는 누군가에게 단 2루피만 줘도 그것은 수십만 루피와 맞먹는다. 만일 어떤 이가 백만장자이면서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그 백만은 백만이 아닌데 그는 욕망으로 인해 구걸하는 거지이기 때문이다. 욕구는 고통을 의미한다. 욕망 (잇차)은 결코 너희를 선량하게 (앗차) 만들 수 없는데, 왜냐하면 비록 너희들의 없어질 욕구가 충족된다 해도, 그 욕구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욕구를 낳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은 마치 거미줄에 사로잡힌 듯이 여러 가지 욕구의 동심원 안에 갇히게 된다. 너희가 비록 그러길 원한다 해도 너희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거미줄에 붙들려 버린 너희의 형제들을, 없어질 욕망을 알지조차 못하도록 무지하게 만들어라. 괴로워하는 것 (파레산)은 너희가 품위 (산)보다 낮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너희들 모두 신의 자녀들, 공여자의 자녀들이니 모든 성취는 너희가 타고난 권리다. 너희의 품위를 잃으면 너희는 괴로워진다. 그런 영혼들에게 그들의 고귀한 품위를 보여줘라. 너희가 뭘 해야 하는지 이해하느냐?

2중의 외국인 자녀인 너희들 모두 각자의 장소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서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 대 기부자이며 축복의 공여자가 되어 모든 영혼들의 앞자락을 평화와 행복의 성취로 가득 채워줘라. 너희는 이 생각을 갖고 돌아가지 않겠느냐? 자녀들의 용기와 사랑을 보며

밥다다는 그들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자녀들에게 수백만 곱절을 보내준다. 머나먼 나라에 사는 자들이 인식과 성취를 통해서 더 가까이 온 반면, 이 나라에 사는 자들은 인식과 성취를 통해 멀어졌다. 그러므로 2종의 외국인 자녀들아, 성취의 화신이 되려는 결심과 함께 충족감이라는 열의를 갖고 끊임없이 계속 전진해라. 행운의 공여자, 모든 성취의 공여자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한다. 앗차.

자비로운 아버지의 그렇게 자비로운 자녀들에게, 충족감의 보석이며 모든 이를 충족감의 보물로 가득하게 만드는 자녀들에게, 항상 모든 성취의 화신들이며 남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들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게 되도록 늘 좋은 염원을 품고 지내는 자녀들에게, 없어질 욕망에 관한 지식에 있어 모든 이를 무지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모든 힘을 다 가진 강력한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2 종의 외국인 자녀들을 보며 밥다다가 말씀하심.

만일 이 그룹 안의 누군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듣는다면 너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너희들 중의 누구도 집에 굴레를 갖고 있지는 않을 테지? 이런 일도 역시 일어날 것이다. 모든 이의 승차권이 다 취소되어서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야 할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는 아무도 구원 (편의시설)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브라마 바바가 아비약트가 되었던 그 나흘 동안의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두들 기억하느냐? 건물들이 충분히 컸느냐? 너희가 뭐라도 요리를 했느냐? 그러면 그때 너희는 그 나흘을 어떻게 보냈느냐? 파멸의 때도 역시 그것과 똑같이 보내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 너희는 사랑에 잠겨있지 않았느냐? 완성도 역시 그런 단계에서 너희가 사랑에 잠겨 있을 때 꼭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여기 산 위에 머물며 타파샤를 할 것이다. 너희는 제3안으로 파멸의 전체를 다 볼 것이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태평하지 않느냐? 너희의 가정, 가족 또는 일에 대해 너희에게는 전혀 아무 걱정도 없다. 너희는 항상 태평하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없다. 무엇이 일어나든 다 좋을 것이다. 이를 두고 태평하다고 한다. 너희는 어쩌면 너희의 센터나 은행 예금 잔고를 기억할지 모른다.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게 해야 된다. 너희들의 부가 건물을 위해서 사용되어왔든, 은행에 들어있든 그것은 어쨌든 진정한 부다. 너희는 몇 백만 배로 늘어난 부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이미 보험에 들어놓지 않았느냐? 먼지는 먼지로 화할 텐데, 너희는 몇 백만 곱절로 불어난 부를 받을 것이다. 그 외에 뭘 더 너희가 원하느냐? 진정한 부는 결코 허비되지 않는다. 이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결같이 태평하게 지내라. “앞으로 센터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이 없게 해라. 그 모든 것은 이미 보람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너희들은 더 이상 그것이 가치 있게 쓰일지 여부에 대해 아무 의문도 갖지 않는다. 너희는 이미 그것을 유언으로 넘겼다. 미리 유언해 놓은 이는 태평한 상태로 지낸다. 너희들 모두 이미 모든 호흡, 생각, 매 1초1초, 부, 몸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느냐? 이미 유언으로 넘긴 것은 무엇 하나라도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너희는 슈리마트 없이는 단 1초, 동전 한 닢도 쓸 수 없는데, 그것은 모두 신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들은 제 스스로나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너희는 지시 받은 데 따라서 그것을 쓸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맡겨진 보물들에 대해 부정직한 것이다. 너희가 지시 없이 너희의 부를 아주 조금이라도 어떤 과제에 쓴다면, 그 부는 그 경우 너희가 그것을 사용한 곳으로 너희를 끌어당길 것이다. 부는 너희 마음을 끌어당길 것이고, 그러면 마음은 몸을 끌어당겨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미 그것을 모두 유언해 놓지 않았느냐? 너희가 받은 지시대로 모든 것을 쓴다면, 거기에는 죄나 부담이 없으며 너희는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 너희는 지시들을 이해하지 않느냐? 너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시를 이미 받았다. 그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너희는 결코 혼동되지

않을 테지? 너희가 뭔가를 해야 할지 또는 어떤 특정한 과제를 하지 말아야 될지 여부에 관해 너희는 결코 혼동되지 않겠지? 혼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도구들에게 얘기해서 확인 받아라. 그렇지 않고, 또 만일 너희의 단계가 강력하다면 너희가 암릿 벨라에 받는 터칭은 늘 정확할 것이다. 뒤섞인 감정들을 마음에 담고 암릿 벨라에 앉지 말고, 깨끗한 지각으로 앉아라, 그러면 터칭이 정확할 것이다.

일부 어떤 자녀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에 자기 나름의 감정만 갖고 앉는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 내 견해로는 이것이 좋다.” 그러므로 터칭도 역시 정확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경우에 그들은 오직 제 마음의 생각에 대한 응답만 받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런저런 이유로 성공이 없다. 그러면 그들은 암릿 벨라에 받은 지시에 대해 혼란스러워짐으로써, 어떤 일이 왜 일어났으며 자기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으므로 그 감정들에 대한 결과만 받았던 것이다. 제 마음의 지시에서 너희는 어떤 결실을 받겠느냐? 오직 혼란뿐이지 않겠느냐? 이를 두고 너희들 마음의 생각까지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 한다. 내 생각은 이런데, 바바는 뭐라고 하실까? 앗차.

교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너희들은 대등하기 때문에 밥다다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진다. 아버지는 선생이고 너희들은 마스터 선생이다. 어쨌든 대등한 자들은 무척 사랑 받는다. 너희는 아주 좋은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 봉사에서 전진하고 있다. 너희들 모두 지구의 통치자들이다. 너희들은 순회 여행을 다녔고 여러 영혼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가까이 데려오는 과제를 행하고 있다. 밥다다는 기쁘다. 밥다다가 너희들에게 흡족해한다는 것을 너희도 느끼지 않느냐? 아니면 너희는 약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느끼느냐? 그는 기쁘지만, 너희는 그를 좀 더 기쁘게 해야 한다. 너희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너희들은 사랑으로 열심히 노력하므로 그것은 힘든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 밥다다는 봉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머리 위의 왕관이라고 항상 말한다. 너희들은 머리에 쓴 왕관이다. 자녀들의 열성과 열의를 보면서 밥다다는 열성과 열의를 늘게끔 더욱 협조한다. 자녀들의 한 걸음과 아버지의 몇 백만 걸음이다. 용기가 있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열의의 성취가 있다. 용기를 가질 때 너희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태평한 황제들이다. 계속 봉사해라, 그러면 너희는 계속해서 성공을 받을 것이다. 앗차.

마운트 아부의 컨퍼런스에 온 귀빈들을 밥다다가 만나심. (1984년 2월 13일)

유엔 사무부총장, 제임스 조나 박사.

밥다다는 늘 언제나 이 자녀에게 협조해주고 그의 마음속 생각을 이루어줄 것이다. 너의 생각이 무엇이든 너는 그 생각들을 실현시킬 올바른 장소에 정확하게 도달해 있다. 이들 모두가 네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너의 동반자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기억함으로써 너는 한결같이 평화를 경험할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행복으로 충만한, 아주 사랑스러운 평화를 경험할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네가 이미 도달했으니 너는 봉사의 도구가 되었다. 도구가 된 데 대한 보답으로, 네가 아버지를 기억할 때마다 너는 쉽게 성공을 계속할 것이다. 항상 네 스스로를, “나는 평화의 화신인 영혼이다, 나는 평화의 대양인 분의 자녀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영혼이다”라는 의식 속에 머물게 해라. 누가 너와 접촉하든 그들에게 계속 이 경험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해라. 이 알로키한 직업은 변함없이 네가 고귀한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그 고결한 행위들은 너로 하여금 고결한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의 현재와 미래, 양쪽 모두 다 고귀할 것이다. 너는 평화를 경험할 가치 있는 영혼이다. 끊임없이

평화의 대양 안에서 파도를 타고 계속 움직여라.

과제가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평화의 천사들과 연결된 상태로 머물러라, 그러면 어려움들이 쉬워질 것이다. 이해하느냐? 그렇다 해도 너희는 대단한 행운아들이다. 몇 백만 중에서 오직 소수뿐이고, 한 손으로 꼽을 정도인 그 중에서도 단지 몇 명만이 행운의 공여자의 이 나라에 도달했다. 그러니 너희는 복이 많아졌다. 이제 너희는 반드시 몇 백만 곱절로 복 많게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이니 단지 평화의 천사들과의 연결을 계속해라. 여기에 도달한 자들은 특별한 배역을 연기하는 특별한 영혼들이다. 너희는 미래에도 역시 특별한 배역을 맡을 텐데 그것은 너희가 더욱 발전하는 데 따라 알게 될 것이다. 이 과제는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이것은 다만 봉사할 행운을 만들고자 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봉사의 수단일 뿐이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이미 달성되었고 전에도 무수히 여러 번 달성되곤 했다. 너희들의 생각은 아주 좋다. 여기서 간 너희의 동료들, 사랑하며 협조하고 있는 자들 모두에게, 사랑의 꽃과 더불어,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아비야트 밥다다가 마담 안와르 사다트를 만나심 - 이집트에 보내는 메시지.

너의 나라로 돌아가 그들에게 부의 경제를 위한 방법을 보여라. 너는 마음의 행복으로 부를 경험하고, 마음속 행복을 기반으로 부의 경제를 경험한다. 이런 방식으로 부와 마음의 행복의 수단을 갖고 경제적이 되는 길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은 너를, 자기들에게 부 (단)와 마음 (만)을 주는 행복의 천사로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평화와 행복의 천사가 된 다음에 가라. 평화의 이 희생의 불에서 불멸의 축복을 갖고 가서 변함없이 항상 지니고 다녀라.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너희가 “나의 바바”라고 할 때마다 언제나 아버지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낮에는 시시때때로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라. 밤에는 혼자 잠들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의 동반을 변함없이 항상 계속 경험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이가 행복과 평화를 받아야 합당하다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봉사를 많이 할 수 있고, 진심에서 우러난 소망으로 뭔가를 할 때 너희는 반드시 그것에서 성공을 이룬다. 앗차.

Blessing: 아버지 한 분과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 쉬운 요기가 됨으로써 마야에게 작별을 고해라.

관계가 있을 때는 기억이 저절로 쉬워진다. 아버지 한 분과 모든 관계를 다 가지는 것이 곧 쉬운 요기가 되는 길이다. 쉬운 요기가 됨으로써 너희는 쉽게 마야에게 작별을 고할 수 있다. 마야가 떠나고 나면 아버지의 환영인사가 너희로 하여금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매 발걸음마다 신과 브라민 가족에게서 축복을 계속 받는 자들은 쉽게 계속 날아다닌다.

Slogan: 한결같이 바쁘게 지내는 사업가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매 발걸음마다 수백만의 수입을 벌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